

# 전북특별한클래스로 학력신장 가속

### 도내 2개 중학교 2학년 대상 명예의 전당에 올라 익산어양초 6학년·전주지곡초 5학년도 상위 랭킹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AI 기반 맞춤형 학습콘텐츠인 '전북특별한클래스'로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이끌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북특별한클래스는 AI를 이용해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등 5개 과목 진단평가와 총괄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생의 학습 수준을

분석해 개별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지원한다. 실제 도내 초·중학교에서는 전북특별한클래스를 활용,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전주 기전중학교는 중2 수학클래스와 국어클래스를 열어 10월 명예의 전당 1·2위에 올랐는가 하면, 지난

7~8월에는 전주 만성중학교가 중2 국어클래스를 열어 역시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특히 전주 만성중은 방학 중 가정학습으로 전북특별한클래스와 학습지원 앱 올라를 연계, 운영했다. 또한 익산어양초 6학년, 전주지곡초 5학년이 꾸준한 참여를 통해 상위 랭킹을 마크하고 있다. 한편 명예의 전당은 전북특별한클래스와 같은 AI 코스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전국 학교의 활용도 및 정답률 등을 분석해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현재 전남교육청과 인천교육청 등이 전북과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전북특별한클래스는 사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저소득층 학생과 학습보충이 필요한 학생을 지원해 교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면서 "AI 코스웨어를 통해 학생들의 개별적인 학습상황 진단 및 맞춤형 학습지원을 강화해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고교생 맞춤형 진로 지원

### 전주대, 'Dream 제작소' 운영 이달 2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6개 단과대학서 프로그램 마련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오는 23일부터 12월 14일까지 매주 토요일 고등학생들의 개인 맞춤형 학과 체험과 실습을 통해 본인의 진로를 이해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험형 캠프 프로그램인 'Dream 제작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6개 단과대학에서 각 단과대학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활용한 기획·창작 특강 및 실습 프로그램을 제공, 고등학생들의 진로 설정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6개 단과대학의 프로그램 주제는 △인문콘텐츠대학: 글로벌 콘텐츠 창작 캠프 △사회과학대학: 넓은 세상, 나의 길을 찾아가는 다섯 가지 방법 △공과대학: 공학 크래커(Craker: Craft+Maker) 되기 체험 △문화융합대학: I am a World Star △문화관광대학: 신나는 K-컬처, 패션과 맛을 한번에 즐기자! △사범대학: 교사, 드림(Dream) 메이커라는 단과대학 별 맞춤형 주제는 고등학생 개인의 적성과 흥미를 찾고 구체적인 진로 가이드를 제공한다.

관심있는 고등학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전주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진배 총장은 "전주대는 고등학생들이 적성·흥미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Dream 제작소'를 통해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진로진행 비전 로드맵을 설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대, 2025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신규 채용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2025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을 신규 채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인공지능학과, 데이터공학과 등 12개 학과에서 12명의 전임교원을 뽑는다. 오는 28일까지 전주대학교 홈페이지 내 채용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후 서류심사 및 연구업적 평가, 발표 평가, 면접 평가를 통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한편 임용예정일은 2025년 3월 1일이다. 박진배 총장은 "전주대학교와 함께 미래를 이끌어 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오늘의 너는 내일의 영웅" ... 수능 앞두고 수험생 응원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수능을 하루 앞둔 13일 동양고등학교 수험생 예비소집에 참여해 재학생들과 함께 수험생들을 응원하고 있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수능을 하루 앞둔 13일 동양고등학교 수험생 예비소집에 참여해 재학생들과 함께 수험생들을 응원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 '지속가능 도시' 위한 대학의 역할 모색

### 전북대, 전주 미래도시포럼 참가... 지역 발전 위한 글로벌대학 30 사업 비전 등 발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전주 미래도시포럼'에서 지속가능 도시를 위한 대학의 역할을 모색했다. 이번 포럼은 11~13일 3일간 '도시와 공간, 그 미래와 가능성'을 주제로 국내외 석학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전북대학교 특별 세션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해외대학의 저명한 연사들과 글로벌대학의 기획처장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과 지역사회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플로리다대학교의 사키브 무크타(Sajib Mukhtar) 박사는 미국 대학과 지역 사회 간 협력을 촉진하는 협동확장(Cooperative Extension) 프로그램의 사례를 통해 대학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 호주 시드니공과대학교의 손호경 교수는 시드니의 미래 전략을 기반으로 넷 제로(Net-Zero)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손 교수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70% 감축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드니의 도시 설계 전략을 공유하며, 환경과 도시가 공존하는 새로운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글로벌대학30 사업에 선정된 주요 대학의 기획처장들이 패널로 참여해 각 대학의 혁신 전략과 비



'전주 미래도시포럼'에 참가한 전북대학교가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해외대학의 저명한 연사들과 글로벌대학의 기획처장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과 지역사회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전을 발표했다. 전북대 백기태 교수는 "전북대 글로벌대학 프로젝트는 지역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며, 대학이 지역사회의 성장을 이끄는 중심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원대 조영태 기획처장이 지역 산업과 연계된 혁신적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 상생의 구체적 사례를 발표하고, 원광대 황진수 부총장은 생명과

학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전략과 지역 산업의 국제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백기태 기획처장은 "글로벌대학30 사업은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교육과 연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중심축이 돼야 한다"며 "이번 세션이 국내외 대학이 협력해 새로운 도시 모델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내년 3월 1일자 교장공모제 시행 계획 안내

### 초빙형 6곳 등 총 9개 학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5년 3월 1일자 교장공모제 시행 계획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3월 1일자 공모교장 운영학교는 초빙형 6개교, 내부형 3개교 등 총 9개교다. 올해 9월 1일 기

준 교장공모 운영학교는 초빙형 37개교, 내부형 22개교, 개방형 5개교 등 총 64개교다.

공모교장을 희망하는 사람은 지원서, 자기소개서, 학교운영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갖추어 오는 19일까지 해당학교 교무실 또는 행정실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종목별 레전드 선수들 도내 학생선수와 만나다

### 전북교육청, 학생선수 진로체험 한마당 운영 16일부터 내달 7일까지 10회에 걸쳐 진행

종목별 레전드 선수들이 학교를 찾는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도내 학교운동부 선수들의 진로진학 지원을 위해 '레전드가 찾아가는 학생선수 진로체험 한마당'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레전드 선수들과의 만남을 통해 경험을 나누면서 학생선수들이 운동에 집중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지역내 육성종목 운영학교 간 연계를 강화하고, 학생선수 중도 탈락을 방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행사는 11월 16일부터 12월 7일까지 초·중·고교 동일 지역 및 동일 종목으로 운영되는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등 4개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종목별 레전드 선수로는 △농구 조성원(전 LG세이커스 감독) △남자배구 이상열(전 KB손해보험 스포츠 배구단 감독) △여자배구 한송이(전 정관장레드스파르스 선수) △배드민턴 하태권(아테네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핸드볼 최현호(전 국가대표) △펜싱 신아람(런던올림픽 은메달리스트) 등이다.

이들은 학생선수들에게 개인별 원포인트 레슨을 비롯해 운동선수 생활의 슬럼프 및 마음가짐, 목표 설정 등 경험에서 나오는 생생한 조언을 전해줄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생수 감소로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가 위축되고 있다"면서 "레전드가 찾아가는 학생선수 진로체험 한마당이 학생선수 진로지도와 학교운동부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는 13일 대학 본관에서 남원제일고등학교와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 '맞손'

### 전주대, 남원제일고와 협약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13일 대학 본관에서 남원제일고등학교(교장 김한태)와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박진배 총장, 안세길 문화관광대학장, 권이구 기획처장, 이대희 외식산업조리학과장, 김한태 교장, 윤혜영 실과부장, 김양자 정보부장, 김동현 조리교사 등이 참석했다.

이를 통해 전주대는 △남원제일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한 전주대 입학 안내 및 지원(산학과정, 정구과정) △남원제일고등학교 조리제빵 교육

과정에 대한 자료 제공 및 교수 출강 등을 이어 갈 계획이다.

김한태 교장은 "외식산업 시장을 선도하는 전주대학교와 협약을 맺게 돼 무척 기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남원제일고등학교 조리제빵과 학생들이 전주대 외식산업조리학과와 우수한 경쟁력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박진배 총장은 "전주대 외식산업조리학과는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전문가로 거듭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외식산업조리학과와 조리제빵과 간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 완주수소특화국가산단 이끌 인재 키운다

### 전북하이텍고, 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검사처와 협약

전북하이텍고등학교(교장 송현진)는 12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검사처(처장 이재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송현진 교장과 이재관 처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협약식은 완주 수소특화국가산단을 이끌어 갈 핵심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활용한 수소 분야 교육과정 운영 △진로 선택을 위한 진로특강 및 취업특강 협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수소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컨설팅 및 산학겸임교사 지원 △수소 산업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4월 개소한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가 보유한 수소추출설비, 수전해설비, 고정형 연료전지, 이동형 연료전지 분야의 검사 설비를 활용해 학



교 현장에서 구현할 수 없는 국가 검사인증 수준의 실험실습 환경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송현진 교장은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 기업, 인근 대학뿐만 아니라 주요 공기업까지 우리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향후 2025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에 선정돼 지역에서 자란 학생이 지역에서 육성을 위한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전북하이텍고는 전북글로벌특성화고에 선정, 내년부터 '수소에너지 고등학교'로 전환된다.

/장은성 기자